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9.

행 정 재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장 영 교

1. 제안요지

- 가. 의안번호: 제1852호
- 나. 제 출 자: 성동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 11. 11.
- 라. 회부일자: 2022. 11. 18.

2. 제안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복지국 소관부서 조정(안 제7조)
 - 여성가족과 업무 일부를 분리하여 영유아과 신설
 - 청소행정과를 복지국에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으로 조정
- 나. 부서 명칭변경(안 제8조)
 - 공동주택과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주택정책과로 명칭변경

다. 지속발전과와 도시재생과 부서 통합(안 제10조)

라. 부서 업무분장 사항 현행화(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안 취지

- 본 개정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및 1인가구 정책강화 필요성과 반려동물 업무의 수요 증가에 따라 여성가족과를 분과하여 1인가구 정책팀 신설 및 종전 지역경제과 반려동물정책팀을 이관하고 영유아과를 신설하여 기존 여성가족과 업무 중 보육 관련 2개 팀을 이관 및 출생지원팀을 신설함
- '22년 성동구 1인가구는 57,230가구로 '17년보다 11,242가구(15.27%)가 증가하여 전체가구의 42%를 차지하며 성동구의 대표가구 형태로 자리잡았고

(단위: 가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2. 1월)

총 인구 (명)	총 가구 (가구)	1인가구 현황			
		2022년	2017년	2015년	2010년
285,990	134,233	57,230	49,650	47,605	45,988
1인가구 비율		42.63%	38.32%	37.84%	36.28%

-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학업·일자리, 고령화, 비혼, 만혼, 이혼 등으로 1인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프라 발달 및 생활 편의성 확보로 생활 만족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단위: 가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2. 1월)

구분	합 계	청년층 (39세 이하)	중장년층 (40세 이상)	노년층 (60세 이상)	비고
가구수	57,230	25,406	15,941	15,883	
비율	100%	44.39%	27.85%	27.76%	

(단위: 가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2. 1월)

구분	합계	남성	여성	비고
가구수	57,230	28,834	28,396	
비율	100%	50.38%	49.62%	

- 이에, 연령별, 성별, 지역별 현황에 따른 1인가구 정책사업 수요가 발생하여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야기하는 안전·건강 문제를 해소하고 고독·고립 탈출 및 건강한 일상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등 세대별 요구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낮은 결혼율과 저출산 현상으로 서울의 인구감소가 심화되어 서울의 합계출산율('21년 0.63명)이 OECD 평균(2.32명)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데드크로스 시대에 진입하였다는 통계청 발표¹⁾가 있음
- 이에따라, 공보육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성동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아이꿈누리터 운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4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했듯이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영유아과 및 출생지원팀 신설은 일관된 정책추진을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4.22.)에 따르면 국내 반려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 2020년 27.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 지역경제과 반려동물정책팀을 여성가족로 이관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성동구 동물등록 현황**

(단위:마리)

총 계	2013~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6,672	7,395	1,026	4,294	1,537	2,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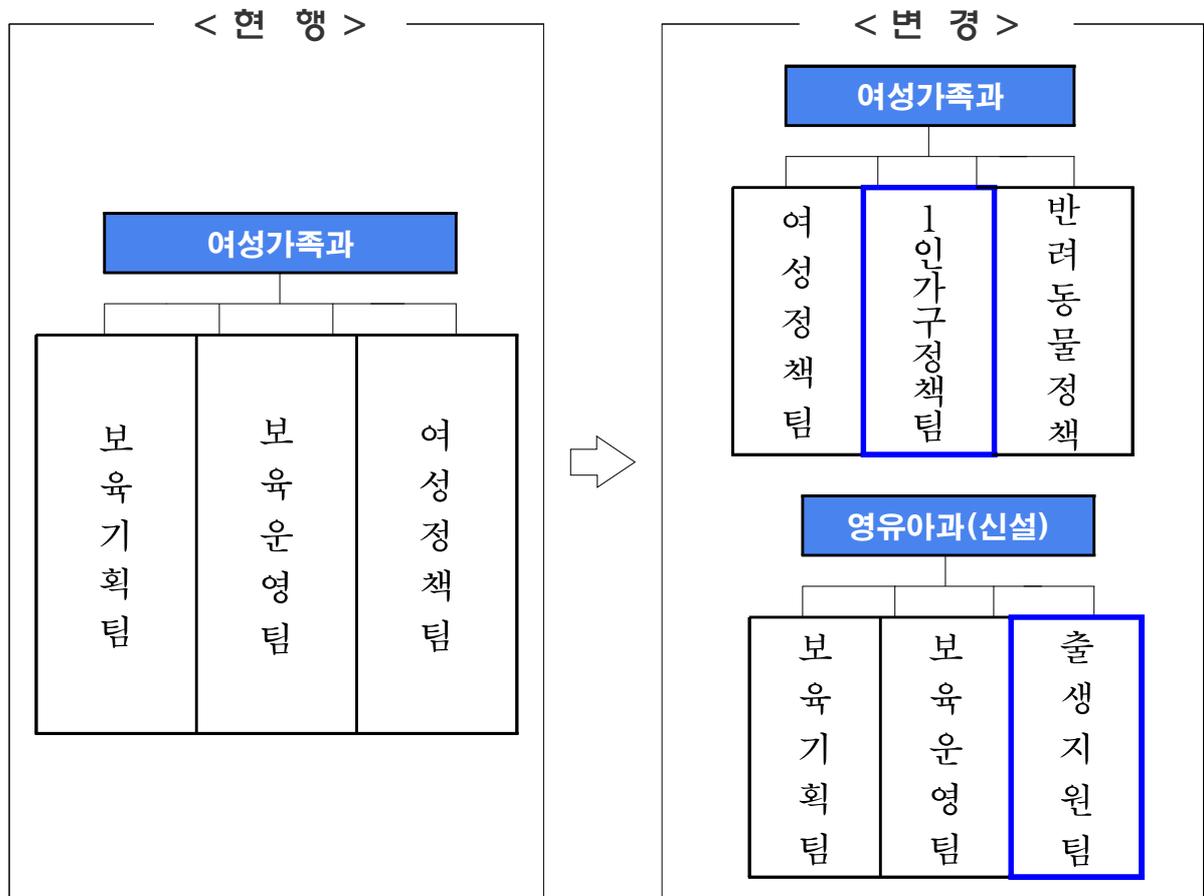
1)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2.9.5. 통계청

※ 성동구 동물 관련 업소 현황

(단위: 개소/2022.1월)

계	동물 병원	동물 약국	동물 판매업	동물 미용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운송업	동물 전시업	사료 제조업	곤충의료기기 판매업 등
189	30	49	19	51	28	4	1	1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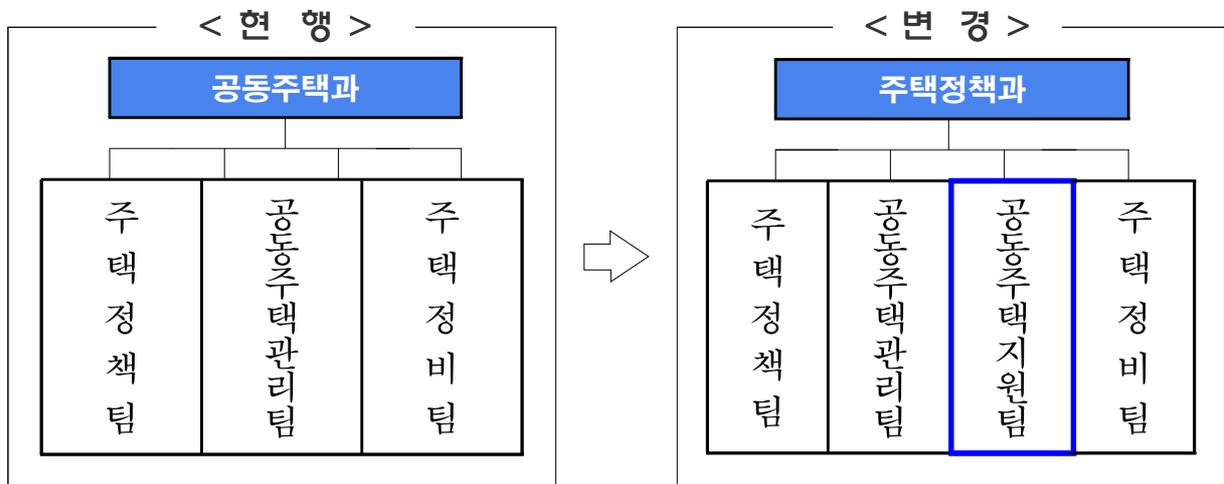
※ 안 제7조 관련



- 안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에서는 공동주택과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그 명칭을 주택정책과로 변경하였으며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 제정 계획에 따라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주택에 대한 관리,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팀을 신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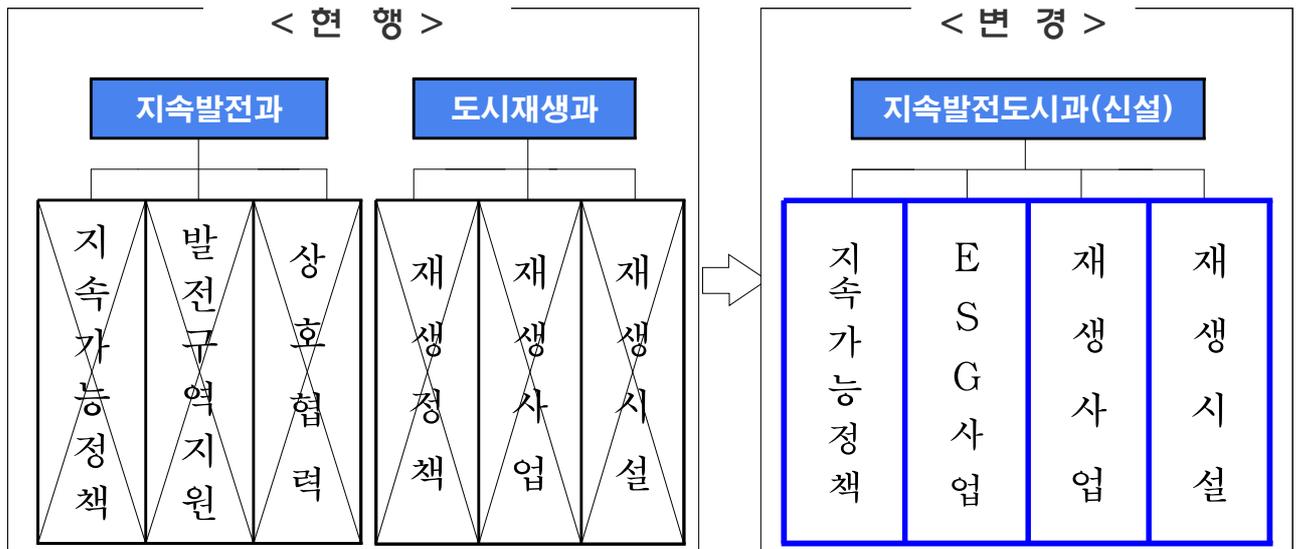
- 현행 조례에는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 있고 그 외의 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주택 및 거주목적의 반지하,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안 제8조 관련



- 안 제10조(스마트포용도시국에 두는 과)에서는 청소행정과를 복지국에서 스마트포용도시국으로 조정하고 지속발전과와 도시재생과 부서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기능 통합 및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지속발전도시과를 두고자 함
- 이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업무 축소 및 개발정비 중심으로 재구조화되는 추세에 맞춰 정책 일원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임

※ 안 제10조 관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출산율 저하 등 전 세계적인 인구절벽 위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동구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서 신설 및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집행부에서는 기구의 명칭이나 소관업무의 조정과 같은 조직개편 추진에 맞춰 업무성과 향상과 내실있는 조직관리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 행정의 수요자인 구민의 눈높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